

첫 법학석사시험 광주·전남 251명 응시 “시간 부족하고 어려웠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석사시험(LEET)이 처음으로 치러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사대부고는 24일 오전부터 긴장이 감돌았다. 한 문제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험 내내 팽팽한 기운이 느껴졌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입실을 마치고,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3교시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전국 13개 중 광주·전남지역 고사장이인 전남대사대부고에서는 총 275명의 지원자 중 24명을 제외한 251명이 응시했다. 결실율은 8.7%. 전국적으로는 1만960명 중 1천194명(1교시 기준)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10.9%의 다소 높은 결실율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응시자 중 최고령자는 62세, 최연소자는 21세였다.

수험생들은 수개월의 시험 준비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와 전남대사대부고에서 지원 나온 40여명의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이 실력을 최

대한 펼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평소 일요일이면 추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학교 운동장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학교 뒷편의 전남대 로스쿨 전용관 공사현장도 시험 시작과 동시에 공사를 중단했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거나, 가족들이 직접 싸온 도시락을 나누며 긴장을 풀었다.

시험 종료시간인 오후 4시30분이 되자 수험생들은 시원섭섭한 표정을 하며 고사장을 빠져나왔다. 시험은 대체로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교시 과목인 '추리논증'의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시험을 치른 직장인 이모(34·광주·북구 문흥동)는 "인터넷 강의로 5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다"며 "회사에 로스쿨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학교에 원서를 낼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인 정모(36·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

험을 통해 LEET가 어떤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다"며 "전남대에 지원해 특성과 분야인 공·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대 법대 학생 이모(23·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5개월 전부터 시험을 준비했다"며 "법대에서 배운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시행된 시험이었던 만큼 수험생들이 겪은 운영과정 상의 불편도 터져나왔다.

이모(아·24·익산시 신동)씨는 "전북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광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야 전주에서도 시험을 보는 것을 알고 바꾸려 했으나 변경이 안돼 불편을 겪었다"며 "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할 방침이면서 굳이 시험지를 수거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음달 비 많고 한차례 태풍

기상청 하반기 예보

9월 중 한반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한차례 정도 태풍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눈은 오는 11월께 서해안과 영동지방에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이후 올 하반기 기상예보를 내놓았다.

9월 상순 많은 비-11월 첫눈 = 기상청에 따르면 9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 불안정이나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순과 하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9월 강수량은 평년(113~244mm)보다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14~23도)과 비슷하겠다.

10월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10월 하순에는 일

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으며, 내륙 및 산간 지방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11월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서해안과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첫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을에는 세계적으로 태풍 9~10개가 발생해 이 중 1개 가량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기온 약간 높을 듯 = 올 겨울 기온은 평년(영하 6도~영상 8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도 평년(55~214mm)과 비슷하겠으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다.

/정성필기자 kps@kwangju.co.kr

큰 일교차 조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21~29℃
여수	구름 많음	21~28℃
목포	구름 많음	22~26℃
순천	구름 많음	20~27℃
해운대	구름 많음	18~31℃
부산	구름 많음	19~28℃
대구	구름 많음	20~29℃
전주	구름 많음	18~29℃
대전	구름 많음	19~29℃
인cheon	구름 많음	20~29℃
서울	구름 많음	18~29℃
평양	구름 많음	19~29℃
하얼빈	구름 많음	19~29℃
울릉도	구름 많음	19~29℃
독도	구름 많음	19~24℃

8월 25일

(음 7월 25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7:53 썰물 < 01:15
목포 밀물 < 21:18 썰물 < 13:26
여수 밀물 < 02:29 썰물 < 09:19
여수 밀물 < 16:33 썰물 < 23:19

▲해돋이 06:00 ▲해질 19:09 ▲달돋이 14:5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날씨						
최저/최고	21/29	21/30	21/30	21/31	22/30	22/28

유→류 성씨 변경, 1년간 4만여명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羅(라)·李(리)'처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4만여명의 '유씨'가 '류씨'로 호적을 변경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된 호적예규를 작년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9천695건, 羅(라)씨 86건, 李(리)씨 26건, 기타 林(림)씨와 盧(로)씨 등 7건으로 모두 9천814건이다.

이에 법원은 9천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가장 성씨가 정정된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천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달한다. 가장의 성씨가 고쳐지면 1인당 평균 자손 3~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성씨가 '류'로 변경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로 가장 많고, 전남 12.6%, 서울 11.1% 순이다.

/연합뉴스



법학석사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4일 오후 광주·전남 고사장이인 전남대사대부고 한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3교시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립대 교수 성과급 격차 최대 1,800만원

지난해 국립대 교수 간 성과급 격차가 연간 최대 1천800여만원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실효를 평가한 결과 부산대의 경우 최저 등

급 교수와 최고 등급 교수 간 연간 성과급 격차가 1천884만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교수 간 성과급 연간 평균 격차는 2005년 61만4천631원, 2006년 148만9천817원,

2007년 166만1천792원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급 예산 총 476억7천300만원 가운데 74%인 352억원의 대학의 교원수, 지급단가 비율에 따라 일괄지급하고 26%인 124억원의 대학별 성과급 소요액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소요액의 100%, 77.7%, 54.1%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만명 당 21명 마취 후 1주일내 사망

서울대병원 5년치 분석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안원식 교수팀은 지난 2000~2004년 사이에 이뤄진 병원 내 7만4천458건의 '마취과 수술 후 1주일 내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5명(0.21%)이 숨져, 1만명당 21명의 사망 빈도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마취 후 사망률을 마취 종류별로 보면 전신 마취가 0.23%의 사망률을 보여 다른 마취 방법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 부분 마취에 해당하는 척추 마취는 해마다 1명 정도의 사망했다.

나이대별로는 1세 이하 영아에서 0.90%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며, 80대 이상 0.53%, 70대 0.40% 등의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반면 1~9세나 10~19세 사이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진료과별 마취 후 사망률은 ▲흉부외과가 1.56%, 상인 0.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경외과(0.46%) ▲소아 일반외과(0.39%) ▲일반외과(0.3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사망률은 비교적 낮았으며, 안과는 수술과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단 1건도 없었다.

수술 종류별로는 심혈관계 수술이 1.23%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소화기계 관련 수술(0.46%), 신경계 관련 수술(0.45%) 순이었다.

/연합뉴스

대법 "고통 주는 안수기도 불법"

눈 부위를 누르는 등 고통을 주는 안수기도는 피해자 측이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45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8월18일부터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B(당시 25세)씨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계 누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조선대 오늘·전남대 내일 석·박사 학위 수여식

전남대와 조선대가 이번주 초 2008년 하반기 석·박사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전남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15개 단과대학에서 각각 학위 수여식을 연다. 이날 학위를 받는 석·박사는 박사 111명, 일반대학원 석사 206명, 특수대학원 석사 411명 등 총 728명이다.

조선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교내 서석을 4층 대강당에서 '2008년 8월 석·박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89명, 석사 198명이 배출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목포 아파트 화재 50대 장애인 사망

지난 23일 낮 12시53분께 목포시 용당동 모 아파트 5층 광모(51)씨 집에서 불이 나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방에서 발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불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취급 부주의나 전열기 과열 등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보고 고찰한 사인 및 화인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구 도청 앞)

광주남구점 062-554-0015 | 군산점 063-245-0005 | 목포점 061-245-0086
 광주북구점 062-227-5310 | 전주북구점 063-285-2855
 목포점 061-245-0086 | 광주합동점 062-974-3050 | 전주서점점 063-282-2216

2008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중국 가을여행 Best 4 상해·황산·장가계·계림

상해, 항주, 소주 4일 ₩479,000~579,000

상해, 황산, 항주 5일 ₩659,000~759,000

상해, 장가계, 원가계, 항주 5일 ₩969,000~1,139,000

상해, 계림, 용승온천(목포) 5일 ₩889,000

70만원 혜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무인출발 동반자 7% 할인

북경여행 무인출발

도전 초보자! 알뜰 여행! 알뜰 프랜차이즈! 알뜰여행!

[정통]북경, 만리장성 74일 ₩439,000부터

일본 패라특선여행 무인출발

[정통]특수선 대마도 역사탐방 2/3월 ₩319,000~399,000

축석특선 인천출발

일본	중국
동경~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1,590,000~1,990,000	74일 북경, 만리장성+용승온천 4일 ₩649,000~749,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1,190,000~1,590,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699,000~799,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1,190,000~1,590,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699,000~799,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1,190,000~1,590,000	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후쿠오카 4일 ₩699,000~799,000

동남아 인천출발

항공가 무인출발 [일본]특수선 15일 ₩699,000~799,000

대한/외국, 마쿠+온천 3일 ₩849,000~949,000

대한/외국, 마쿠+온천 3일 ₩849,000~949,000

대한/외국, 마쿠+온천 3일 ₩849,000~949,000